

첫 무대라 긴장했나...몸 덜 풀린 리드

“리드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실 광주 AI페퍼스 감독은 2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니아 리드(25·미국)에 대해 “아직 한국배구와 팀에 적응이 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리드는 전날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전에서 데뷔했다.

리드는 퍼퍼스의 해결사로 기대를 모는 자원이다. 2021-2022 시즌 브라질 리그 세시 볼 레이 바우르에서 득점 1위를 차지한 검증된 선수다.

하지만, 이날 아포짓 히터(Opposite Hitter·라이트)로 나선 리드는 9득점에 그쳤다. 공격 성공률은 28.57%, 공격 점유율도 30.11%에 그쳐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고비 때마다 결정타를 날려줄 해결사를 기대했던 것과 다른 지표다.

9점을 올렸지만 파워넘치는 스윙보다는 블로킹벽을 공략해 아웃을 유도하거나 연성 공격이 대부분이었다.

리드의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페퍼스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1순위로 지명한 리드는 지난 달 27일에야 한국에 입국했다. 타 팀 선수들은 지난 7월에 입국해 호흡을 맞춘 것과 큰 격차다.

리드는 올해 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와 판아메리칸 컵을 앞두고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정을 소화하느라 팀 합류가 늦어졌다.

시즌 개막을 3주 앞두고 팀에 합류한 결과는 흥국생명전에 반영됐다.

세터 이고은과 호흡이 맞지 않아 강타를 날리지 못했고 사인 교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강점으로 꼽힌 속공도 연습 때와 달리 보여주지 못했다.

미들 블로커(Middle Blocker·센터)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브로킹에서도 눈길을 끄는 플레이는 없었다.

김형실 감독은 “리드가 세터 토스 높이에 적응이 안된 데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 파괴력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직 감을 못잡는 것 같다. 불이 손에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뷔전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으나 리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는 평가는 받았다.

토스와 서브가 안정적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수비에서는 리베로에 버금가는 탄탄한 실력을 보여줬다. 결정적인 디그(상대팀의 득점을 막는 수비) 6개를 만들어 냈다. 흥국생명전에서 리베로 문슬기의 디그가 7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리드의 수비능력은 수준급이다.

김형실 감독은 리드를 다양한 작전과 플레이에 활용할 복안을 갖고 있다.

김연경 같은 특정 선수에게 위기 상황에 공격을 맡기는 ‘몰빵 배구’에 어울리는 ‘대포’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다.

대신 ‘기관총’ 역할이 어울리는 선수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양한 포지션을 오가며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이다.

리드는 고교 때 미들 블로커(Middle Blocker·센터), 아웃사이드 히터(Outside Hitter·레프트) 등 다양한 포지션을 거쳤다.

김형실 감독은 “리드가 일찍 팀에 합류했다더라면 더 좋은 플레이를 했을 것이다. 당분간 플레이를 지켜본 뒤 역할과 임무를 부여할 생각”이라며 “광주 흥경기(28일) 때는 리아가 다른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퍼스는 전날 흥국생명전에서 세트 스코어 0-3(16-25, 16-25, 16-25)으로 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페퍼퍼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의 경기에서 니아 리드가 강타를 날리고 있다. <KOVO 제공>

K팝스타 뺨 치는 김연경...V리그 '5000 관중' 시대 여나

29일 원정경기 예매 28분 만에 매진

프로배구 V리그가 4년 만에 ‘한 경기 5천 관중 입장’ 시대를 다시 열 수 있을까.

프로배구 여자부 흥행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았던 프로배구 현장 열기가 ‘배구 여제’ 김연경(34·흥국생명)의 복귀로 뜨거워지고 있다.

배구계는 김연경의 복귀전인 25일 흥국생명-페퍼퍼축은행전에서 기대 이상의 관중이 몰렸다고 분석하면서, 2018-2019시즌 이후 끊겼던 ‘한 경기 5000명 입장’ 기록을 올 시즌 내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연경이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흥국생명과 페퍼퍼축은행의 경기엔 총 4345명이 입장했다.

한 경기에 관중 4000명 이상이 몰린 건 2020년 1월 27일 현대건설-흥국생명(4654명·수원체육관)전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흥행에 불리한 상황에서 쓴 기록이라서 더 의미 있

시작 28분 만에 매진됐다.

KGC인삼공사는 26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해당 경기는 휠체어석 및 사회 배려석을 제외한 유료 판매석 3034석이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마치 K팝 스타의 콘서트 티켓 예매 열기를 보는 듯하다.

배구계는 조만간 5000명 이상의 관중이 김연경을 보기 위해 경기 현장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관람석은 최대 5800석 규모로, 관람석을 가득 채우면 2018-2019시즌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5000관중 입장 기록을 쓰게 된다.

프로배구 여자부에서 5천 명 이상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건 2018년 12월 25일 화성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한국도로공사전(5108명)이 마지막이었다.

남자부는 2019년 1월 10일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5043명)전 이후 관중 수 5000명을 찍은 적이 없다. 한 경기에 4000명 이상이 관람한 건 2020년 1월 2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라카드-삼성화재전(4165명)이 마지막이다. /연합뉴스



동료의 득점에 기뻐하는 김연경. /연합뉴스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해남서 3년 만에 열린다 28~30일 6000여명 참가

제34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28일부터 30일까지 해남에서 펼쳐진다.

‘살맛나는 으뜸해남 하나되는 감동제전’이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6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육상, 축구 등 21개 정식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줄다리기, 바둑 등 민속경기와 시범종목 경기도 치러진다.

이 행사는 전남 최대 생활체육대회이자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 마당이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개최된다.

해남은 지난 6월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8월 전남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과 이번 행사를 치르는 등 전남 생활체육 중심지로 조명받고 있다.

개회식은 28일 식전행사와 선수단 입장식, 개회선언, 대회기 계양, 주요내빈 축사, 선수단 선서 순으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트로트 여제’ 장윤정을 비롯해 ‘트로트 왕자’ 정동원, ‘여주행 신드롬’ 브레이브걸스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한다.

최기동 전남도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전남 최대 생활체육 대회에서 시·군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



2019년 열린 제31회 전라남도 생활대축전 입장식. <전남도체육회 제공>

올해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정

올해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52·사진)가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문화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34회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를 열어 이봉주(육상), 김수영(양궁), 박항서(축구), 고(故) 최동원(야구) 등 스포츠 영웅 최종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심의해 이봉주를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결정했다고 26일 전했다.

선정위는 이봉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육상인으로,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한국 신기록을 세 번 수립하는 등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봉주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 2001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우승,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마라톤 금메달 등 숭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 한국 육상 발전에 이바지했다. 1992년 도쿄 국제하프마라톤대회, 1998년 로테르담 마라톤대회, 2000년 도쿄 국제마라톤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3번 수립했다.

이봉주는 2009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고, 은퇴 이후 한국 마라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직장 이상증’이라는 희소병을 앓아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리멤버
- 2관 블랙 아담
- 3관 자백, 공조2: 인터내셔널, 극장판 핑구는 못 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 4관 자백
- 5관 리멤버
- 6관 자백
- 9관 리멤버, 아인보: 아마존의 전설
- 7관 써니케틀, 블랙 아담, 스마일, 정직한 후보2, 오편: 천사의 탄생
- 8관 써니케틀, 스마일, 인생은 아름다워, 오편: 천사의 탄생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회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2022. 11. 21.(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GAC기회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⑧ 몰토 콰르텟

일시: 2022. 11. 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